기획시리즈 대학법인, 무엇이 문제인가

채워져야 할 국·사립의 재정격차

〈3〉 국립대와 사립대학의 법인

공사립대 법인형태의 비교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이른바 문민정부시대의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그 결실성이 고양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월25일 취임한 김영삼대통령이 유세기간중 '교육대통령'되겠다고 호언한 점과 취임이후 일련의 개혁조치를 바라보는 교육계및 국민들의 기대감이 교육부문에까지 확장되면서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요인은 교육계인사는 물론 전체 대다수의 국민들이 오늘날 한국교육현실에 대해 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에 대한 일대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교육개혁이라 함은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원과정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그 대상으로 포괄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대학교육에 대한 개혁은 그 중요성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문으로 보인다.

우리는 흔히 대학을 진리탐구의 전당이자 상아탑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대학이 그 수식어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장되어야할 수준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이라는 문제다. 자주성 내지는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은 대학으로서 존재가치를 잃을 수 밖에 없으며 공공성이 지켜지지 못하는 한 교육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에 있어서 자주성 내지 공공성의 보장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면적으로 대학법인과 정부라는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립대의 특수법인화

국립대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이 하나는 국립대학도 국가기관이 일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법제하에서 모든 운영이 정부전체의 공통적인 법규와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채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립대학들은 '설치령'에 의해 조직·편제와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기관과 동일한 통제를 받고, 정부기관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때문에 국립대학은 공공기관이 갖는 관료제적 요소가 강하고 운영상의 재량권이 매우 미약한 상태다.

이러한 국립대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위해 제기된 것이 바로 국립대의 특수법인화이다. 즉,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일률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법인체로서 독자성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여기서 특수법인이란 공법인과 사법인의 중간적인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공사, 국책은행 그리고 국가출연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연구기관들이 특수법인의 형태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 문제는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의 '교육개혁종합구상'과 89년 교육부에 의해 작성된 교육개혁 장단기 추진계획(1989-2001)에서 개혁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의 진전이나 발전없이 하나의 과제로서 남아 있는 상태다.

학교법인의 문제점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립학교법 제2조3항). 또한 그밖의 법인이나 사인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3조 및 교육법 시행령 제54조).

따라서 학교법인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법인이나 재단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수많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힘입어 엄청난 양적팽창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문제점을 지녀온 것도 사실이다.

학교법인은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사학의 재정과 운영에 있어서의 분리라는 점이다. 80년 박정희정권이 무너진후 전국의 수많은 사립대학에서 제단퇴진운동이 일어난 것은 바로 재단의 간섭과 통제때문에 대학이 발전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설립자 개인의 사유물화되어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일정부분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지난날의 오류와 잘못을 제도적으로 또한 합법적으로 복권시켜주고 보장해주는 독소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므로 해서 사학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교육비 부담 문제에 있어서 설립자 부담원칙 혹은 소유자 부담원칙이라는 것과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상호 이질적인 두 요소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혼합·적용해 오고 있다. 설립자 부담원칙이나 소유자 부담원칙을 따르자면 국·공립대학의 교육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사립대학은 전적으로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된다. 한편,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그리고 학생이 공동으로 교육비를 부담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행정에서 오랜 관행으로 되어져 왔으며, 후자의 경우는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학교당국에서 내세우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주요한 명분중의 하나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소유자 부담원칙 따른 교육재정확보 잘못

학교법인 거듭나기 위한 자기개혁 필요한 때

고등교육, 특히 대학교육은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기업의 성장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비의 1차적인 부담 주체는 당연히 국가와 기업체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까지 소유자 부담원칙을 고수해온 까닭에 전체 대학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립대학을 재정적 빈곤의 악순환 속에 밀어넣고 말았다. 이는 국립대와 사립대의 재정구조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1991년 교육부가 발간한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경우 전체 재정규모를 1백%로 볼 때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4.4%, 국고보조금은 60.0%를 차지한다. 반면에 사립대학의 경우 납입금이 75.7%, 전입·기부금 16.3%, 국고보조금 0.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국·공립대는 그 실제적인 설립자이자 소유자인 정부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고 사립대는 소유주인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곧 정부가 대학교육의 4분의 3을 무책임하게도 포기하고 있다는 말에 다름아닌 것이다. 정부는 교육재정의 확충과 아울러 대학지원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공평성 확보에 이제라도 나서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미비는 취약한 학교법인의 수익구조와 맞물려 사학을 빈곤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곧 사학에 있어서 학생부담의 가중으로 귀결되었다. 해마다 계속되는 등록금 투쟁의 본질도 결국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대학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1차적인 수익자는 국가와 기업체이며 2차적인 수익자가 바로 학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이러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록금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공립대학 사립대라는 구분은 그 설비주체에 따른 차이점을 지칭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립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은 자주성과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조건을 확보해야하며 학교법인은 이러한 대학의 기본요소를 보장하고 함께 대학발전의 길로 배진할 수 있는 협력자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우리의 대학은 불행히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숱한 부정적인 요소만을 노정하였다. 김영삼정권의 개혁조치가 가시화되면서 마지막 남은 개혁의 대상은 대학과 언론이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대학사회에 몸담고 있는 지성인답게 대학, 그리고 학교법인만큼은 외부의 수술지시가 내려오기전에 자체적인 개혁의 방안들을 강구하고 제시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소유자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행에 머물러 사학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의 잘못된 대학교육행정도 하루바삐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김 길 윤
〈한국대학신보 기자〉

강단시론

김 언 종
〈외대교수·중문학〉

NPT와 핵무기에 대한 단상

Ⅰ. 어릴때의 경험

국민학교 4학년 때 이미 나는 핵무기의 공포를 실감하였다. 믿는 사람마다 겨우 얼한 살짜리 꼬마가 그렇게도 조숙했단 말인가 하고 실소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해 여름 중공이 핵실험을 하였고 이른바 '죽음의 재'라는 핵폭탄의 낙진(落塵)이 게절풍에 실려와 한반도의 하늘을 가득 덮었었다. 그즈음 어느날 학교집에 비가 내렸고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나는 빗속을 숨차게 달려 오느라 온몸이 흠뻑 젖었다. 그날 저녁 우연히 오늘 내린 비에는 죽음의 재가 섞여 있으며 맞으면 수십년후부터 원자병의 증세가 나타나고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등등의 보도에 겁했다. 이튿날 선생님으로부터 원자병은 돈등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란 설명과 함께 우산을 준비하라고 그렇게도 일렀는데 넌 어디다 정아놀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전쟁을 벌여서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억작같이 저지하는 측이 누구인가하는 점이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NPT에 가입한 국가전체라기보다도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는 국가슨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누구라도, 핵무기 보유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만해도 수십개의 지구를 궤멸시킬 수 있는 절말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국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파괴력을 가진 러시아를 제외한, 기타 보유국들도 이웃나라 몇개쯤은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에 우리보다 더 안달인 일본은 어떠한가? 최근에 그들은 돈 있으면 별것다해도 되느냐는 여러나라들의 따진리입을 매처리게 느낀다. '핵확산금지조약'이란 이 단어는 결코 바른 명칭이 되지 못한다. '확산'을 '보유'로 바꾸어 '핵보유금지조약'이 되어야 명정언순(名正言順)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NPT의 현장이나 규약에 대해 나는 무식하지만, 아마도 핵무기의 완전한 소멸을 최종목표로 설정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의 것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참으로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국가나 종족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핵무기의 완전폐기를 전제로한 '핵보유금지조약'을 조속히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핵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은 가지기를 위한 은밀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노력을 제을리 한다면 그것은 생사여탈권을 주인에게 맡겨둔채 눈치만 살피는 개돼지의 신세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Ⅱ. 각국의 핵무장

북한의 핵 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으로 세계가 떠들썩하다. 이 초미(焦眉)의 정치군사적 문제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내가 무어라 '부리'를 놀리겠는가만, 놀아가는 모양새가 석연치 않은데가 있어 한마디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이 끈질기게 그리고 악착같이 확보하려는 것은 핵무기임에 틀림없다. 경제적 어려움과 현대사회에 그 유례가 드문 부자간 정권이양의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그들로서 최후의 궁여지책이라는 시각도 있고, 빌써 한두개는 보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소탄 일괄개면 한반도 전체를 순식간에 날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쓰면 겁나는 일이신을 쌀았느냐는 꾸지람까지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예사에 의욕을 잃었고 불행한 미래와 죽음을 늘 생각하는 애늙은이가 되어 성장기를 게걸음치며 흘려 보냈었다. 중늙은이가 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면 혈압이 쑥쑥으르는 소리가 들린다.

Ⅲ. 확산이 아닌 보유금지

여기서 나는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이라는 데로 시선을 돌려보고자 한다. 확산금지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더이상 광대산포(擴大散布)하지 말자는 뜻이다. '더이상'이란 말은 지금까지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물론 우리는 '세계평화를 위하여'라는 양두(羊頭)를 걸어놓고 핵무기 일부를 파기한 미국과 러시아의 노력을 보아왔다. 그러나 그것도 실상은 계절스럽게 먹어대다가 주체하기 힘든 비만증에 걸린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군살을 빼는 자구책일 뿐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이라는 단어를 대할때마다 "명칭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안되고, 말이 안되면 되는 일이 없다.(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고 했던 공자님의 말씀이 만고의 가운 시선을 외면한채 핵폭탄 수십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사서 저장하고 있지 않은가?

Ⅳ. 반핵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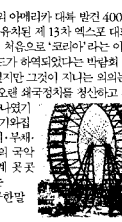
북한의 악작같은 집착 역시 이런 배경에 근거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싶다. 우리도 한때는 핵무기 보유에 집착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면 차라리 나라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평화에의 첨경이라는 역설(逆說)이 오려려 설득력을 얻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전체에 있어서의 핵무기는, 한 개인에 있어서의 암세포에 다름 아니다. NPT라는것은 비유한다면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 병든 생명을 연장시켜 보자는 임시 미봉책일 뿐, 결코 암세포로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소생을 기도하는 일대 수술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고 인류의 참된 소생을 바란다면 이제부터라도 '핵확산금지조약'의 준수가 아닌 '핵보유금지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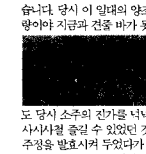
EXPO'93 공식주류공급업체

EXPO VS 엑스포

1893년.시카고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여 유치된 제 13차 엑스포 대회 참가국 명단에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해 5월 3일 83개 2만9천 파운드가 하역되었다는 박람회 보고서 기록으로 보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듯 싶지만 그것이 지니는 의의는 자못 컸습니다. 엑스포 최초 참가라는 의미외에도 오랜 쇄국정치를 청산하고 세계를 향해 우리의 대문을 열려는 다각적 시도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인 — 여덟간 기와집으로 꾸며진 당시 한국관에 관복·도자기·오시·부채·갑옷·가마 등이 전시되어, 함께 파견된 10명의 국악사들이 연주하는 전통음악과 더불어 전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시카고의 코리아 선풍'은 나라 안으로는 구한말 고종황제 30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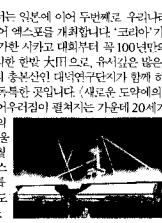


1893년.서울 세번 고아서 燒酒, 이슬처럼 받아내 露酒, 정기를 놀여준다 하여 氣酒라고 별칭되던 소주가 마포·동막·공덕리 등지에서 제조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일대의 양조장은 대략 100여호 정도, 제조 보급량이야 지금과 견줄 바가 못되었지만 당시 청간에서



南酒北餠'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목맥산(지금의 남산) 남쪽이 이 지역에서 빚어지는 소주는 이미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 맑음은 물과 같고 그 맛은 진하고 강렬하다"고 묘사한 옛 문헌만 보아도 당시 소주의 진가를 넉넉히 가늠할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주를 사시사철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듯, 이른 봄부터 마련해둔 주정을 발효시켜 두었다가 5월이나 되어서야 빚기 시작했고 10월 무렵이 되면 그나마도 한해 마무리를 해야 했던 탓에 소주는 "春秋佳節에 대하는 귀한 술"로 여겨지곤 했답니다.

1993년.대전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나라가 주인이 되어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코리아'가 처음으로 참가한 시카고 대회부터 꼭 100년만의 쾌거, 축제 마당은 한반도 중심부에 자리한 한밭 大田으로, 유서깊은 많은 문화유적지와 더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본산인 대덕연구단지가 함께 하는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동특한 곳입니다. 〈새로운 도약에의 길〉이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과학의 멋진 어우러짐이 펼쳐지는 가운데 20세기를 결산하고 21세기의 포문을 여는 지구촌의 대축제「대전엑스포'93」. 지난'88년 서울 올림픽이 세계의 東과 西가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로 만나는 장이었다면, 대전엑스포는 세계의 南과 北이, 그 경제적 거리를 뛰어넘어 균형있는 발전 속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1993년.眞露 대전 EXPO를 기념하고 우리 술의 국제화를 위해 진로가 새로운 감각의 우리 술을 선보입니다. '세계의 함께 나아가는 新세대 新감각에 어울리는 우리 술'을 개발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선두주자로서의 오랜 전통과 첨단 기술을 한데 모아 마침내 眞露가 탄생시킨 新 소주 — 「진로엑스포」. 최상의 알콜만을 엄선해 지은 발효시킨 쌀주정이 정가되어 그 향이 더없이 부드럽습니다. 게다가 정밀여과처리로 한번 더 걸러빛어 맑고 투명한 소주 특유의 깨끗한 맛이 그대로 느껴지면서도 마신 뒤 숙취가 남지 않아 뒷끝 또한 깔끔합니다. 그래서 화근하게 즐기고 깨끗하게 취하는 바로 이 소주 — 「진로엑스포」 21세기로 향하는 우리의 깨끗한 선택입니다.

株式會社 眞露

진로엑스포는 EXPO'93을 기념하고 소주의 국제화를 위하여 진로의 정단 양조기술이 정성껏 제조한 EXPO'93공식소주입니다.

진로엑스포

1924 1954 1967 1970 1980 1992

*EXPO란?
올림픽 대회와 함께 세계적인 양대 이벤트로 자리를 굳힌 EXPO는 '박람회 EXPOSITION'의 줄임말로 경제·과학·기술·문화의 종합올림픽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